경기도의회

vol. 297

경기 바다 물놀이

바람을 타고 여름이 열리다



경기도의회

Contents

vol.297

의정홍보위원회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임광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가평)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이재교 위원(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위원(케이미디어 대표이사)
김부용 위원(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도연수 위원(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발행처
경기도의회

발행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편집인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발간일
2026년 7월 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홍보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문의 전화 031-8008-7123

제작
경성문화사



12



14


72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우가 읽어주는 e-book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만나보세요. www.ggc.go.kr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의 길

06 **의장 개회사**

08 **본회의 일지**

12 **의정 브리핑**

16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결산**

42 **5분 인사이트**

48 **조례 카드**

59 **행정 인턴의 하루**

62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삶의 길

72 **경기 지하철 나들이**
의왕역에서 왕송호수까지

76 **휠체어로 떠나는 여행**
초원을 지나, 시간 속으로

80 **하루를 바꾼 조례**
허준, 따뜻한 처방을 만나다

84 **교실에 닿은 조례**
교실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다

86 **의정 웹소설**
물이 넘치지 않은 이유

90 **당신을 기억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훨훨 오르시길

92 **건강 100년 노트**
혈당 관리, 달콤한 습관을 경계하라

94 **천천히, 디지털**
문자 속 링크,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96 **선조의 하루, 나의 하루**
초가집에서 아파트까지 하루를 품는 공간의 변화

100 **응답하라 경기**
그 시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

102 **[웹툰] 의회툰**
작은 목소리가 그늘을 만들다

104 **경기 문화 한마당**

106 **독자 솜씨 마당**

108 **의정홍보위원회 편집 후기**

Chapter 1



의정의



포천 아트밸리

답은 회의실이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하나의 길을 만드는 일.
민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의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삶 앞에서 함께 답한 4년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화합했던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입장이 부딪히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쉽게 결론이 이르지 못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경기도의회가 놓지 않았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도민의 삶이었습니다.
의회는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이 자리의 동료 의원님들 모두 그런
사명감으로 지난 4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협치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과 균형 속에 매 순간이 거대한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을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했고 더 치열하게 조정하며 답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역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의견은 달라도 민생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책임이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움직여 온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화와 조율을 통한 상생의 정치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11대 의회가 남긴 또 하나의 큰 보람은 정책 중심 의회로의 도약입니다.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지역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했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운영하며 우리가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 삶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는 모두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의미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늘 지방의회의 새로운 길을 먼저 고민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자치분권 확대 역시 더 큰 권한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 삶을 더 책임 있게 지켜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습니다. 도민 기대에 충분히 닿지 못한 순간도, 더 나은 해답을 찾지 못해 한숨 쉬던 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믿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싸운 시간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16일간의 마지막 정례회 기간,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마음 그대로 도민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페이지가 도민의 고단한 삶을 달래는 든든한 위로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정례회가 후회 없는 마침표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난 4년간 1,420만 도민을 위해 기꺼이 땀 흘려준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르포

초여름 의사당,
제11대 의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초여름 햇살이 의사당을 비추던 6월 9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막을 올렸다. 본회의장에는 회기 시작을 알리는 긴장감과 함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무게감이 함께 감돌았다.

김진경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제1차 본회의는 의사운영 보고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교육, 지역발전, 산업정책, 안전, 복지 등 다양한 현안을 짚으며 도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소개됐다. 민생과 교통, 복지, 교육, 미래산업 등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심사의 방향을 예고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정례회의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다시 한번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제안하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조례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민생과 미래산업, 교육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를 거쳐 도민 삶에 반영될 기반을 마련했다.

정례회의 마지막 순간, 김진경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동안 함께 도민을 위해 힘써 온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오늘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라며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결국에는 도민을 위해 손을 맞잡았던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11대 의정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이 이어졌다. 퇴임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했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회의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날만큼은 따뜻한 격려와 추억으로 남았다.

초여름의 끝자락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는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매듭짓는 자리이자,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함께 걸어온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사당을 나서는 의원들의 발걸음에는 아쉬움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고, 제11대 의정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2026. 6. 24.)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391회 정례회 제1차~제2차 본회의

2026. 6. 9.~6. 24.

조례안
22

동의안
7

건의안
1

예산, 결산안
6

기타
3

총 39건, 원안 가결 35, 수정 가결 4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본회의는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152명이 경기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① 회의 시작
모든 의원이 자리에 앉으면,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② 보고
지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③ 조례 상정
조례는 경기도의 법과 규칙입니다.
의원이 새 조례를 공식 상정합니다.

④ 토론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점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⑤ 5분 자유발언
의원이 5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⑥ 대집행부 질문 및 답변
의원이 질문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답변합니다.

⑦ 투표
상정된 조례나 정책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⑧ 결정
투표 결과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거나,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⑨ 회의 종료
모든 일정을 마치면,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391회 정례회 제1차~제2차 본회의 2026. 6. 9.~6. 24.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

• **경기도청** 안정곤 경제부지사,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전용호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5분 자유발언

발언 의원 **10**명

(발언순 기재)

발언 의원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 퇴임식

제11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150여 명(도의회 대회의실, 2026. 6. 24.)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개최



김진경 의장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 의정 실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6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열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입한 정책 관리체계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까지 점검하며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조례 이행 현황 진단과 관계 부서 의견 청취,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을 보여 줬다”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의정홍보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

유영두 의원, “도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가 6월 9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정홍보위원회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소식지와 웹드라마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힘써왔다.

특히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된 크기의 소식지를 제작해 도내 경로당에 배포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안을 제안했으며,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 제작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의원탐정 기도경>은 ‘2025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대상인 황금해나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은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욱 풍성한 의정 홍보물에 담겨 도민께 닿길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사전설명회 개최



김선영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 앞두고 준비 본격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는 6월 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결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과 예산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결산심사 대상은 총 43조 6,495억 원 규모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심사 결과는 2026년 정책 방향 설정과 2027년 본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은 “결산은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추경 사전설명회 개최

김정호 의원,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운영 심사 내실화 준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조 8,927억 원 규모다. 사전설명회에서는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위원들의 예·결산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제작 본격화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방식에 적극 대응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제작하는 2026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이 주요 배우 캐스팅 결과를 공개하고 6월 17일 대본 리딩을 마친 후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와 쇼트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 겸 배우 '닛몰캐쉬'가 주연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소재로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원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본편뿐 아니라 쇼트폼 콘텐츠도 함께 제작해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방식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웹드라마는 9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공식 인스타그램(@ggd_assembly_webdrama)에서는 다양한 비하인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다.

2026년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초대부터 제10대 의회까지… 시대사 7권 및 대중서 초고 검수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6년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 편찬 사업의 고도화 단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대 의회부터 제10대 의회까지의 역사를 담은 시대사 일곱 권의 초고 검수와 대중서 기획, 전직 의원 구술 채록 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기존의 '행정 백서형 실적 나열식' 방식에서 벗어나 회의록과 조례안, 언론 보도, 연구 자료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역사 기록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경기도의회, AI 코딩 활용 교육으로 업무혁신 본격 시동



직접 자동화 도구 개발하는 'AI 네이티브' 구현 목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5월 13일 판교에 자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도 의회 디지털 역량 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처 직원 26명이 참여해 조례안 비교, 예결산 검토 보고서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등 의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에 나선다. 교육 이후에는 한 달간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 공유회'를 별도로 개최해 우수 사례를 의회 전 부서로 확산함으로써 의정업무혁신 과제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 AI 활용 단계를 넘어 직원 스스로가 AI를 자유롭게 다루며 자동화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 의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했다.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및 고충상담 역량 강화 교육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역량 강화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5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고, 고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 혁신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도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힘·비례)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동안 의회 혁신과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 8월에는 의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 사무처 업무보고를, 9월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익명 제보가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를 열며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2025년 4월에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처리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6월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회 운영 기반을 정비했다.

01. 의회 시스템 구축 위한 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실시(2024. 8. 7.)
02.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24. 9. 11.)
03.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 개소(2024. 10. 7.)
04.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2025. 7. 21.)
05.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2025. 9. 18.)
06.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개최(2026. 3. 31.)
07.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26. 6. 11.)


01



02



03



05



06



04



07

정책연구와 의정 혁신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2025년 7월에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2건의 병합심의 등 조례 심사의 내실화에 힘썼다.

또 2025년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 이는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과 보고서로, 의정 혁신과 제도 개선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2026년 3월에는 지역 언론 기자간담회를, 6월에는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집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혁신과 집행부 견제,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66

조례	43	결의	3
규칙	12	건의	4
승인	3	기타	1

(2026. 6. 26. 기준)

기획재정 위원회

재정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높이며 경기 미래 준비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민주·파주2)는 제11대 후반기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며 균형발전과 재정 운영, 조직 개편 등 핵심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데 주력했다. 2024년 7월 후반기 출범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의정활동을 전개했고, 2025년 2월에는 현안 대비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사업과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행정 분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2025년 7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의·의결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9월에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경기 북부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또 추경예산과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연구와 현장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2025년 4월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교통약자 보호 정책토론회 등을 가졌다. 또 2025년 11월에는 '경



01



02



03


04



05



06



07

01.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단체 사진(2024. 7. 26.)
02. 2025년 현안 대비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2025. 2. 26.)
03.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2025. 7. 17.)
04.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2025. 9. 11.)
05.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2025. 11. 6.)
06.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 11. 10.)
07.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2025. 11. 14.)

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2026년 6월에는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최종 마무리하며 지역발전과 미래 전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2025년 11월에는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가지며 탄소 배출 저감과 효율적 회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5년 11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2026년 6월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1대 후반기는 재정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 온 시간이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76

조례	55	동의	15
승인	4	결의	2

(2026. 6. 26. 기준)

경제노동 위원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의정 집중

제11대 후반기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경제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민주·고양10)는 2024년 7월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로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 후, 10월에는 평택 포승지구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11월에는 경제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노동 분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책연구를 이어갔다.
2024년 12월에는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를, 2025년 11월에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현장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25년 2월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7월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며 노동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살폈다.



01



02



03



05



04



06



07

01.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단체 사진(2024. 7. 24.)
02. 2025년도 본예산 사전 설명회를 위한 현장정책회의(2024. 10. 21.)
03.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2024. 12. 18.)
04.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 현장방문(2025. 2. 17.)
05.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현장방문(2025. 7. 17.)
06.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11. 5.)
07. 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 11. 7.)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로 정책 실효성과 예산집행 적정성을 살핀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어서 2026년 예산안 심의까지 마쳤다. 2026년 4월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규제 등록부터 심사·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지원정책 관련 조례를 심의하며 민생경제 지원 확대에도 힘썼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권 보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노동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94

조례	49	동의	37
승인	4	건의	4

(2026. 6. 26. 기준)

안전행정 위원회

도민 안전과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앞장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 국힘·동두천2)는 지난 2년 동안 재난대응체계 강화와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소방, 자원봉사, 자치경찰, 특별자치도 추진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024년 7월 후반기 출범 이후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갔다. 같은 해 8월에는 파주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해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으며,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정담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월에는 평택소방서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소방 행정과 재난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또 2026년 4월에는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조례안을 심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대응과 도민 보호를 위한 활동도 활발했다. 2025년 3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으며,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


01


02











01.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단체 사진(2024. 7. 24.)
02. 파주 특별재난지역 현장방문(2024. 8. 20.)
0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경기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정책 간담회(2024. 10. 31.)
04. 부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2024. 11. 11.)
05.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방문(2025. 4. 14.)
06.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2025. 6. 17.)
07.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 참석(2025. 7. 16.)

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소방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과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 치안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인력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 대응과 소방 안전, 자치행정 발전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해 왔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98

조례	66	동의	25
승인	4	건의	3

(2026. 6. 26. 기준)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 정책 혁신과 협치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 더민주·수원3)는 지난 2년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4년 7월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로 활동에 들어갔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했고, 이어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문화의 날, 거리로 나온 예술, 전문체육시설 구축 등 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증액하며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관광 분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2024년 9월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미술 분야 진흥 기반을, 2025년 4월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2025년 9월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01



02


03



04



05


06



07

01.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2024. 7. 24.)
02. 제37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4. 11. 19.)
03.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정책정담회(2025. 6. 5.)
04.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최종보고회(2025. 6. 11.)
05.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2025. 7. 14.)
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당적 협치로 2026년 예산안 증액(2025. 11. 26.)
07.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2025. 12. 26.)

대외적으로는 2025년 6월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정책정담회를 개최하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문화 외교 영역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한편, 2025년 6월에는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를 통해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형 민관협력 모델 개발의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7월에는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2026년 6월에는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 ESG 접목 및 실천 방안 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11월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 2025년 12월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79

조례 52
동의 23
승인 4

(2026. 6. 26. 기준)

농정해양
위원회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정 기반 구축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힘·성남5)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 증진, 해양수산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먹거리 정책 확대, 축산·수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2024년 9월에는 (사)경기먹거리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먹거리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해양환경보호 활동을 펼쳤다. 11월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축산 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의 현장을 답사했다. 2025년 6월에는 '경기도 축산 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갖고, 7월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01



02


03



05



04



06



07

0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사)경기먹거리연대 정책간담회(2024. 9. 13.)
02.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 참여, 해양환경보호 활동 전개(2024. 9. 25.)
03. 축산 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 답사(2024. 11. 21.)
04.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2025. 6. 27.)
05. 경기도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25. 7. 24.)
06. 전통주·가루쌀 단지, 농촌 체험 현장방문(2025. 9. 11.)
07. 제387회 정례회 2025 행정사무감사(2025. 11. 11.)

을 마련했다. 2024년 9월에는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2025년 2월에는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처리해 해양수산 산업 육성과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정책연구와 현장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2025년 7월에는 '경기도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9월에는 전통주·가루쌀 단지를 방문해 농업 현안을 점검했다. 11월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6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농정예산안의 적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107

조례	64	동의	36
승인	4	건의	3

(2026. 6. 26. 기준)

보건복지 위원회

도민 건강 증진과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주력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민주·부천2)는 지난 2년 동안 도민 건강권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 9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며,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복지·보건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와 보건 분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2026년 6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거쳐 공공 의료원과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힘썼다.

현장 중심 활동과 정책연구도 활발하게 이어갔다. 2024년 9월에는 자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5년 7월에는 부천 지역 '복지 정보 소외계층 발굴 및 협력'을 위한



01


02



03



05



04



06


07

01.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2024. 9. 3.)
02. 제379회 정례회 2024 행정사무감사(2024. 11. 8.)
03.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2025. 6. 10.)
04. 부천 지역 '복지 정보 소외계층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2025. 7. 21.)
05. 안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담회(2025. 9. 8.)
06.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025. 10. 27.)
07. 제387회 2025 행정사무감사(2025. 11. 7.)

업무협약식을, 10월에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2025년 6월 결산심사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6 예산안 심의에서는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복지사업을 정상으로 복원했다.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88

조례	50	동의	26
승인	4	건의	8

(2026. 6. 26. 기준)

건설교통 위원회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복지 실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 국힘·이천2)는 지난 2년 동안 도민 이동권 확대와 교통복지 향상,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4년 8월에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현장을 찾아 안전 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평택항 경쟁력 강화와 해양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11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경기 북부의 의정부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방문해 교통시설 운영 실태를 살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건설 분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2024년 9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처리해 도시철도 운임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4월에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와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01



02



03



05


04


06



07

01.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식' 방문(2024. 8. 9.)
02. 경기평택항만공사 현장정책회의, 해양 안전 점검(2024. 8. 27.~28.)
03. '2024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참석(2024. 10. 10.)
04.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25. 2. 14.)
05.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2025. 3. 26.)
06.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방문(2025. 4. 12.)
07.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11. 4.)

2025년 2월에는 소관 기관들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정책연구와 현장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 2025년 3월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해 경기 북부 철도교통 혁신을 지원했다. 또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2025년 6월에는 현장정책회의의 일환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했다. 7월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고, 11월에는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갖고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100

조례	66	건의	13
승인	4	의견청취	9
동의	8	기타	1

(2026. 6. 26. 기준)

도시환경 위원회

주거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책 기반 강화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힘·김포3)는 지난 2년 동안 도민 주거 안정과 환경복지 증진,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고 도시, 주택, 환경, 수자원 분야 전반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024년 10월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정책정담회를 열었다. 또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 기간에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당부했다. 제도 개선 성과도 이어졌다. 2024년 9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5년 4월에는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처리해 문화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2025년 2월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탄소중립정책과 폐기물 처



01



02



03



04



05



06



07

01.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모색 위한 현장정책간담회(2024. 10. 7.)
02.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방문(2024. 11. 12.)
03.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2025. 4. 9.)
04.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2025. 2. 18.)
05.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최종보고회(2025. 3. 13.)
06. 판교테크노밸리 및 용인플랫폼시티 현지확인(2025. 11. 12.)
07.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2026. 2. 9.)

리 현황을 점검했고, 3월에는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수질개선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6월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1월에는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026년 2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 안정과 환경복지 증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126

조례	64	결의	1
승인	4	건의	8
동의	48	의견청취	1

(2026. 6. 26. 기준)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미래산업 육성과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

제11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힘·성남8)는 지난 2년 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4년 9월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방문해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으며, 같은 달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서는 신기술 산업 동향을 살폈다. 이어 10월 강릉 현장정책회의와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AI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에 나섰다. 이 외에도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통과시키며 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확대했다.

2025년에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활동과 국제 협력이 이어졌다. 3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월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경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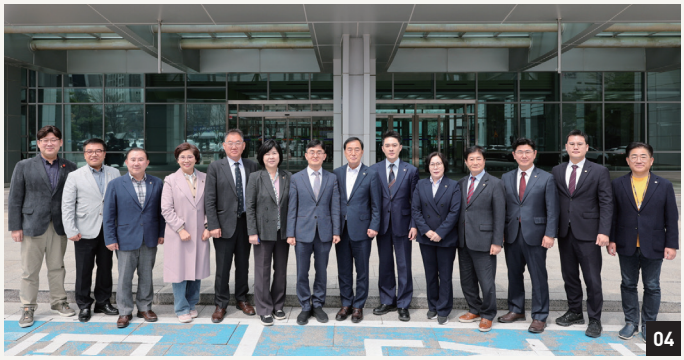
02



03



05


04



06



07

01.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현장방문(2024. 9. 10.)
02.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석(2024. 9. 25.)
03.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현판식(2024. 10. 16.)
04. 경기R&DB센터 현장방문(2025. 4. 9.)
05.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아침 특강(2025. 4. 14.)
06. (주)현대케피코 현장방문(2025. 6. 13.)
07. 제386회 임시회 2025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025. 9. 12.)

기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 첨단산업 현장을 점검했고, 양자기술 동향 특강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6월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주)현대케피코를 방문했으며, 9월에는 제386회 임시회 2025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는 양자산업 육성, AI 정책 관련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6월 제391회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11대 의회 후반기 2년간 추진해 온 미래산업 육성과 혁신 기반 조성의 결실을 맺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158

조례 64
동의 90
승인 4

(2026. 6. 26. 기준)

여성가족평생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강화와 평생교육 기반 확대

제11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무소속·안양3)는 여성·가족·청소년·평생교육 분야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4년 9월 강릉시 통합가족센터[품] 등 강원도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해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기도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9월에는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를 처리해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산하기관의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5년에는 정책연구와 현장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2월에는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을 방문해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4월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기관 운영 방향을 검증했다. 또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 지원과 민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01



02



03



05


04



06


07

01. 강릉시 통합가족센터 [품] 현장방문(2024. 9. 12.)
02.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현장방문(2024. 10. 14.)
03.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방문(2025. 2. 20.)
04.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5. 4. 15.)
05.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2025. 7. 16.)
06.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9. 9.)
07.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2026. 4. 23.)

6월에는 K-컬처밸리 사업 재공모와 진로체험사업, 아이돌봄정책 등을 집중 점검했고, 7월에는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와 청년행정인턴 정담회, 9월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미래세대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4월 제389회 임시회를 열고 청소년·가족·이민정책 관련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제11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124

조례 63 | 동의 51
승인 4 | 건의 6

(2026. 6. 26. 기준)

교육기획 위원회

교육정책 방향 점검과 현장 변화 주도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 더민주·시흥1)는 지난 2년 동안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복지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유보통합 대응 등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2024년 7월 제376회 임시회 회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9월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를 의결해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10월에는 2025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5년 1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2월 안성시 신나는 학교와 한겨레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역별 교육 여건과 대안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2025년 7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교육재정


01



02



03


05



04



06


07

0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2024. 9. 10.)
0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현장방문(2024. 10. 10.)
03.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25. 1. 13.)
04. 신나는 학교 및 한겨레고등학교 현장방문(2025. 2. 18.)
05. 고교학점제 안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2025. 11. 6.)
06.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2025. 11. 12.)
07.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2026. 4. 22.)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고교학점제 개선 TF를 운영해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모델' 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AI디지털교과서 예산집행 문제와 교육청 기금 운용,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체계 등을 점검하며 경기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11월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의 시간도 가졌다.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의결하며 학생과 교직원 지원체계 강화에 힘썼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60

조례	44	결의	1
승인	4	건의	6
동의	5		

(2026. 6. 26. 기준)

교육행정
위원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 혁신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국힘·수원10)는 지난 2년 동안 학생 안전과 건강,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효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행정위원회는 2024년 7월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9월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며 학생 건강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심사하면서 장학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신축 학교 누수 문제와 시설 안전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교육행정위원회는 10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2025년 2월 업무보고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학교 체육관 안전관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정책 등을 논



01



02


03



04



05



06



07

01. 학생건강증진센터 현장방문(2024. 10. 16.)
02.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2025. 7. 22.)
03. 대안교육기관 부천 산학교 현장방문(2025. 9. 12.)
04.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2025. 9. 5.)
05.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토론회(2025. 9. 8.)
06.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2025. 9. 11.)
07.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25. 11. 20.)

의했다. 7월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9월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최초로 대안교육기관인 부천 산학교를 공식 방문해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아우르는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9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등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이어갔으며,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11월에는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제376회 임시회~제391회 정례회

총처리 안건 수 107

조례 85 | 동의 15
승인 4 | 건의 3

(2026. 6. 26. 기준)

5분 인사이트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와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11대 의원들이 경기도민을 대표해 심의 의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발표한 의견을 모았다.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4)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경기도가 고립·은둔 중장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은 부족합니다. 특히 장기 은둔 비율이 높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많은 만큼 단순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담 조직과 예산, 맞춤형 자립 지원체계를 마련해 고립·은둔 중장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전력 위기 해법, ESS 집적단지 조성 시급"



임창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

반도체와 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송전망과 전력 공급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첨단산업 성장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ESS 집적단지는 전력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김현석 의원
(국민의힘, 과천)

"과천 경마공원 이전, 정치 아닌 정책으로 판단해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이후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세수 감소, 교통·교육 인프라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경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문제조차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공급 계획이 발표된 것은 문제입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 미래를 고려해 접근해야 합니다.

"멈춰 선 7호선, GTX-C 양주역 정차 반드시 필요"



이영주 의원
(국민의힘, 양주1)

7호선 연장사업은 전동차 제작 차질로 개통 지연 위기에 놓여 있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생활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한편 GTX-C 양주역 정차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기회입니다. 양주역 정차를 통해 경기 북부 교통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복지의 출발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을 고려한 건축물 편의시설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보행 환경과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보도 단절과 높은 턱 등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을 어렵게 합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문화생활로 이어지는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권과 월경권, 기본 사회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유호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급등한 분양가 부담으로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조기 초경을 겪는 아동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 역시 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거권과 월경권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김완규 의원
(국민의힘, 고양12)

"고양 경제자유구역,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 돼"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수년째 사전 자문만 반복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경기 북부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정산 구조, 투명성 확보 시급"



정하용 의원
(국민의힘, 용인5)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묶음 정산과 상계 처리 방식으로 개별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고, 수수료 산정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수료 문제를 넘어 정산 구조 자체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 차원의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문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1)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이제는 해법 내놓아야"

성남 고등동은 이미 수천 세대가 입주를 마친 생활권이지만, 아직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과 사설 통학버스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는데도 과거 기준에 묶여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도입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화수역 신설을 촉구합니다"



정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3)

고양-은평선은 고양의 미래 교통망을 완성할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역과 화정역 사이에는 여전히 역 간 거리가 먼 구간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선 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수역 신설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달라진 교통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화수역 신설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영 의원
(국민의힘, 성남8)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희망"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현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호황은 안주할 이유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미래를 좌우할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어떠한 불확실성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명규 의원
(국민의힘, 파주5)

"경기 북부 규제, 이제는 풀어야 합니다"

공장 가동 소리가 울려야 할 경기 북부 산업단지에 적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늘고 있지만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과도한 중첩 규제가 원인입니다. 경기 북부 산업단지가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청년정책을 '기회의 복원'으로 확장해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취업과 주거, 부채 문제는 물론 고립·은둔 청년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성장과 자립을 돕는 '기회의 복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청년정책의 플랫폼이 되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종영 의원
(국민의힘, 연천)

"민선 9기 출범,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우선"

도정이 바뀐다고 해서 도민과의 약속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 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과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은 특정 시기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선 9기에서도 주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서성란 의원
(국민의힘, 의왕2)

"감염병 대응, 예방 중심의 준비가 중요"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검역은 국가가 담당하지만 이후 대응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 현장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작동하는지 실질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역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퇴직전문인력, 지역사회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해야"



이택수 의원
(국민의힘, 고양8)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퇴직자의 소득 공백과 사회적 역할 부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교원과 공무원 등은 교육·돌봄·안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학교 시니어강사단과 안전행정지원단 퇴직전문인력 교육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퇴직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미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경기 북부 문화 거점 조성, 이제는 실행할 때"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부지는 경기 북부 문화 자치와 균형발전의 핵심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와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필요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됐으며, 관련 공약과 정책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경기 북부 상상캠퍼스를 문화예술·교육·관광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포용적 돌봄과 교육, 남은 과제 완성해야"



최효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는 유보통합 추진과 다문화·이주 배경 아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돌봄 정책의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급식비 격차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 다국어 지원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희생이 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평)

"가평의 희생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가평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 등 중첩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국립예술중학교 설립은 가평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사업입니다. 가평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391회 정례회 조례 카드

제391회 정례회에서
제정 및 전부개정된 조례 15건을
소개합니다.

기획재정
위원회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석균 의원**
(국민의힘, 남양주1)
대표발의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통일 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등 민족통일 공익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단체의 활동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통일 의식 함양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 민족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체계 구축

일러스트 챗GPT

경제노동 위원회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남경순 의원**
(국민의힘, 수원1)
대표발의



불합리한 규제로 도민과 기업이 행정적 불편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규제 등록과 심사,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개선 과정의 체계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 등록·심사·정비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규제개혁위원회 중심 체계에서 종합 규제관리체계로 개편

보건복지 위원회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황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립 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의 비용 분담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예산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서비스 지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 비율 규정
- 경기도와 시군 간 재원 부담 기준 명확화

건설교통 위원회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

❖ **이영주 의원**
(국민의힘, 양주1)
대표발의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우선관리구역 지정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우선관리구역 지정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시환경 위원회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

❖ **임창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
대표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와 관련 산업 기반 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사업구역 단계부터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의 집적과 미래 도시 기반 구축도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 데이터 기반 시설 집적 및 시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 **김태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5)
대표발의



양자기술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장기간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양자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양자펀드 조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술 사업화와 기업 성장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확대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근거 마련
- 양자기업 투자 지원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장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허위 정보와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새로운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4)
대표발의



비용 부담과 형식 중심 결혼 문화로 결혼을 미루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등 결혼 친화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 결혼 친화 환경 조성사업 시행 계획 수립·시행
- 공공예식장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 **유호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대표발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장례와 입국 절차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통역과 상담, 입국 지원, 시신 송환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근거 마련
- 입국·장례·시신 송환 및 통역 지원 추진

교육기획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김성수 의원**
(국민의힘, 하남2)
대표발의



교육정책 연구가 늘어나면서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 과제 선정부터 결과 공개, 연구 윤리 점검까지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정책연구용역 선정·평가·공개 기준 강화
- 연구 부정행위 점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교육기획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안광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1)
대표발의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심리검사와 전문 상담, 치료 지원 등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심리검사·상담·치료 지원사업 추진

교육기획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황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4)
대표발의

학생들이 겪는 학습과 복지, 건강, 진로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지원체계는 분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생 상황에 맞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교육행정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 **김성수 의원**
(국민의힘, 하남2)
대표발의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로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학생들이 보다 균등하게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추진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인재 육성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
- 영재교육사업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행정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평)
대표발의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문학적 성찰과 기술 윤리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인문학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 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래지향적 가치 기반 인문학 교육 확대
- 문화 소외 지역 학생 인문 교육 지원 강화

교육행정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



❖ **김도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
대표발의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이 늘면서 시설 이용과 학교명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교 스포츠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 구축
- 학교명 사용 및 체육시설 이용 기준 마련

농정해양 위원회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



❖ **윤종영 의원**
(국민의힘, 연천)
대표발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재래종 보전,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재래종 보전 및 연구개발·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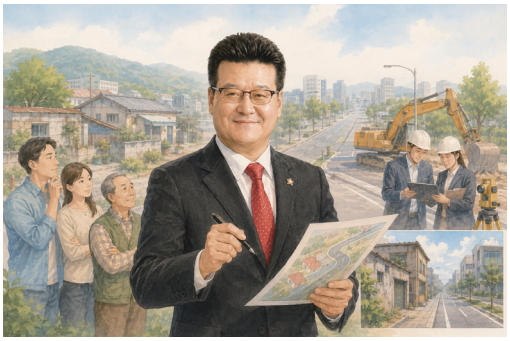
건설교통 위원회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



❖ **안명규 의원**
(국민의힘, 파주5)
대표발의

접도구역이 수십 년간 유지되면서 실제 도로 여건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접도구역 실태조사와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년 단위 접도구역 정비계획 수립
-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등 실시

건설교통 위원회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 **오창준 의원**
(국민의힘, 광주3)
대표발의



주거지와 통학로 주변 골목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이에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골목길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재정 지원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

❖ **이제영 의원**
(국민의힘, 성남8)
대표발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산업기반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 추진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4)
대표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통역과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협력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보건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정책 근거 마련
- 협력의료기관 연계 및 협의체 운영



글 언론홍보과 인턴 홍서연 사진 박기현

행정 인턴의 하루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장



오전 8시 11분, 경기도의회에서의 하루는 1호선 성균관대역 앞에 정차한 통근버스에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직원들과 함께 출근하며 '오늘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질 무렵 의회에 도착한다. 평소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 언론홍보과에 지원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단순히 홍보 업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도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인턴 생활의 출발이었다.

실제 홍보팀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역동적으로 흘러간다. 6월 3일 치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2대 도의원 당선인 현황표를 검수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가 하면, 제11대 도의원들을 위한 감사패 수여식 준비 등 여러 행사 지원에도 참여한다. 최근에는 외부 업체와의 미팅에 참석해 홍보 업무 진행 과정을 배우고,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굿즈 제작 기획에도 참여해 여러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업무들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고, 매일 낯선 경험을 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인턴 생활을 통해 느낀 점은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직사회가 다소 정적이고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언론홍보과는 예상보다 훨씬 역동적인 곳이었다. 소식지와 홍보물 제작부터 행사 지원, 굿즈 기획까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경기도의회를 도민에게 알리고 있었고, 매일 새로운 업무가 이어졌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야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인턴 생활을 하며 홍보 기획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경기도민이 도의회를 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다양한 홍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 또 여러 업무를 접하며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성에 맞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언론홍보과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은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남은 인턴 기간에도 다양한 업무에 참여해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원활히 소화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1,420만 도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총 167명의 도민 대표를 소개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총 167명의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민의 행복과 자치분권을 완성해 갈 제12대 도의원을 도표와 사진으로 만나본다.



김포(4)


최명진
(더불어민주당, 김포1)


채신덕
(더불어민주당, 김포2)


신명순
(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철환
(더불어민주당, 김포4)



군포(4)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군포1)


성기황
(더불어민주당, 군포2)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귀근
(더불어민주당, 군포4)

성남(8)


문승호
(더불어민주당, 성남1)


최만식
(더불어민주당, 성남2)


전석훈
(더불어민주당, 성남3)


국중범
(더불어민주당, 성남4)


방성환
(국민의힘, 성남5)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성남6)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성남7)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8)

부천(8)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1)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부천2)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부천3)


명성숙
(더불어민주당, 부천4)


최성운
(더불어민주당, 부천5)


김동희
(더불어민주당, 부천6)


유경현
(더불어민주당, 부천7)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부천8)

광명(4)


심상록
(더불어민주당, 광명1)


최민
(더불어민주당, 광명2)


유종상
(더불어민주당, 광명3)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광명4)

시흥(5)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시흥1)


최동식
(더불어민주당, 시흥2)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시흥3)


김종배
(더불어민주당, 시흥4)


이성원
(더불어민주당, 시흥5)

안산(8)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안산1)


김태희
(더불어민주당, 안산2)


장윤정
(더불어민주당, 안산3)


유재수
(더불어민주당, 안산4)


이은미
(더불어민주당, 안산5)


박은경
(더불어민주당, 안산6)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안산7)


이철형
(더불어민주당, 안산8)

수원(12)


최상규
(더불어민주당, 수원1)


박옥분
(더불어민주당, 수원2)


한운옥
(더불어민주당, 수원3)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수원4)


황수영
(더불어민주당, 수원5)


최찬민
(더불어민주당, 수원6)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수원8)


이오수
(국민의힘, 수원9)


조명자
(더불어민주당, 수원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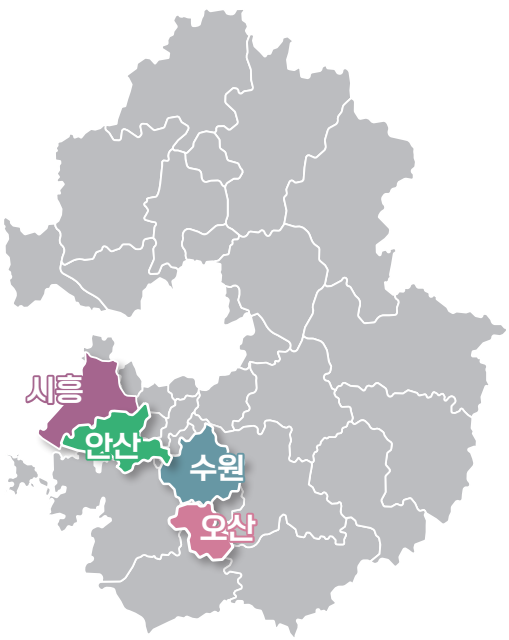

장정희
(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이병숙
(더불어민주당, 수원12)

오산(2)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산1)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2)



과천(1)



김현석
(국민의힘, 과천)

안양(6)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안양1)



최경순
(더불어민주당, 안양2)



윤도희
(더불어민주당, 안양3)



박준모
(더불어민주당, 안양4)



장민수
(더불어민주당, 안양5)



이채명
(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왕(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의왕1)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

양평(2)



윤순옥
(국민의힘, 양평1)



이혜원
(국민의힘, 양평2)

하남(4)



오민용
(더불어민주당, 하남1)



강성삼
(더불어민주당, 하남2)



오지훈
(더불어민주당, 하남3)



방미숙
(더불어민주당, 하남4)

광주(4)



최보라
(더불어민주당, 광주1)



임창휘
(더불어민주당, 광주2)



이자형
(더불어민주당, 광주3)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광주4)



용인(11)



한영수
(더불어민주당, 용인1)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용인2)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용인3)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용인4)



채명신
(더불어민주당, 용인5)



김선희
(국민의힘, 용인6)



김용찬
(더불어민주당, 용인7)



이건한
(더불어민주당, 용인8)



고찬석
(더불어민주당, 용인9)



우현욱
(더불어민주당, 용인10)



엄교섭
(더불어민주당, 용인11)

여주(2)


서광범
(국민의힘, 여주1)


유필선
(더불어민주당, 여주2)

이천(2)


김일중
(국민의힘, 이천1)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

안성(2)


이주현
(더불어민주당, 안성1)


백승기
(더불어민주당, 안성2)



화성(9)


이홍근
(더불어민주당, 화성1)


오현정
(더불어민주당, 화성2)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화성3)


신미숙
(더불어민주당, 화성4)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회철
(더불어민주당, 화성6)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화성7)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진택
(더불어민주당, 화성9)

평택(6)


양경석
(더불어민주당, 평택1)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평택2)


김경옥
(더불어민주당, 평택3)


한규찬
(더불어민주당, 평택4)


안계명
(더불어민주당, 평택5)


한승훈
(더불어민주당, 평택6)

파주(5)



박은주 (더불어민주당, 파주1)
손희정 (더불어민주당, 파주2)
손성익 (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순현 (더불어민주당, 파주4)
이종춘 (더불어민주당, 파주5)

양주(3)



채정선 (더불어민주당, 양주1)
정석원 (더불어민주당, 양주2)
최수연 (더불어민주당, 양주3)

의정부(4)



유수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1)
이영봉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조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동두천(2)



안시현 (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심동용 (더불어민주당, 동두천2)

연천(1)



윤종영 (국민의힘, 연천)

포천(2)



윤충식 (국민의힘, 포천1)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



고양(12)



임유진 (더불어민주당, 고양1)
변재석 (더불어민주당, 고양2)
류기준 (더불어민주당, 고양3)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고양4)



정연일 (더불어민주당, 고양5)
송규근 (더불어민주당, 고양6)
김해련 (더불어민주당, 고양7)
이성한 (더불어민주당, 고양8)
이기대 (더불어민주당, 고양9)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
김운남 (더불어민주당, 고양11)
이윤승 (더불어민주당, 고양12)

남양주 (8)


이건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유병수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김승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이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창식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장송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7)


정현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8)

가평 (1)


박영선
(국민의힘, 가평)

구리 (2)


장승희
(더불어민주당, 구리1)


임창열
(더불어민주당, 구리2)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서인하


김현덕


서혜진


최혜경


지영일


박정균


최순자


송연섭


이미정


김성기


장경임

비례대표 | 국민의힘


이지혜


오남석


최미금


김한슬


최지원


권태익


금종례


김진후


국은주

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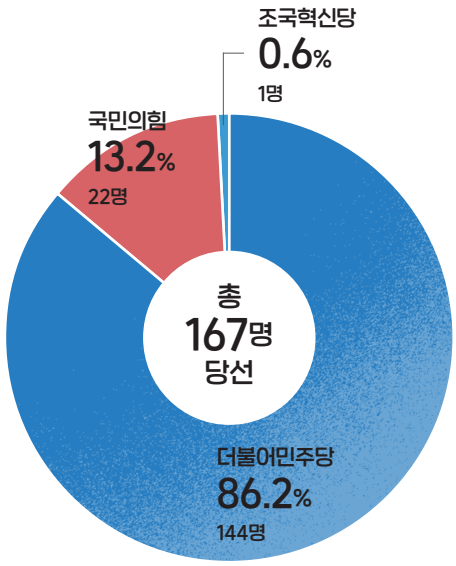

차유미

의회

정당별 현황

더불어민주당 86.2%, 국민의힘 13.2%, 조국혁신당 0.6% 총 167명 당선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4명, 국민의힘 2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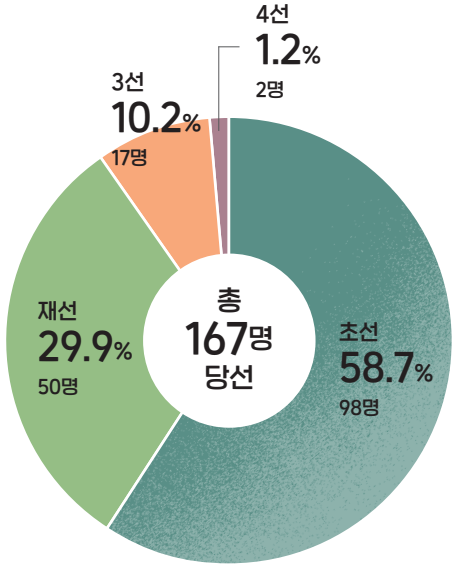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86.2%(144명)
- 국민의힘 13.2%(22명)
- 조국혁신당 0.6%(1명)

다선 의원 현황

초선 의원 58.7%, 재선 의원 29.9%, 3선 의원 10.2%

다선 의원 중 4선 의원은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과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3) 총 2명(1.2%, 더불어민주당 2명)이고, 3선 의원은 17명(10.2%,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2명)이며, 재선 의원은 50명(29.9%, 더불어민주당 42명, 국민의힘 8명)이다. 초선 의원은 총 98명(58.7%, 더불어민주당 85명, 국민의힘 1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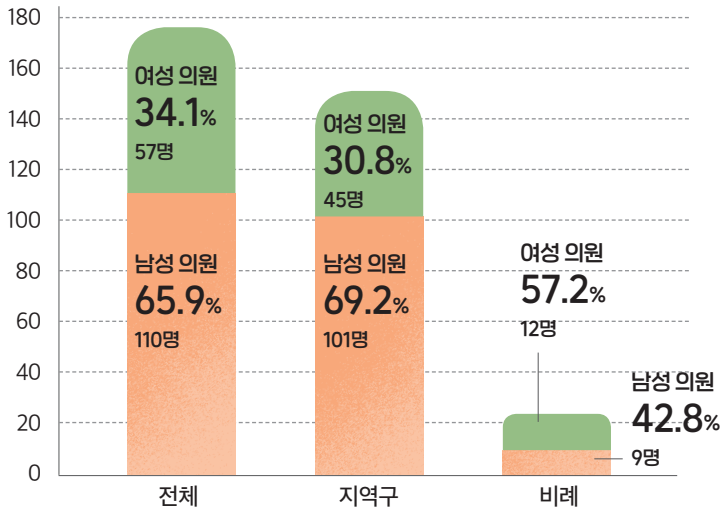


- 4선 1.2%(2명)
  더불어민주당 2명
- 3선 10.2%(17명)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2명
- 재선 29.9%(50명)
  더불어민주당 42명, 국민의힘 8명
- 초선 58.7%(98명)
  더불어민주당 85명, 국민의힘 12명, 조국혁신당 1명

성별 현황

남성 의원 110명 65.9%,
여성 의원 57명 34.1%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총 167명 중 남성 의원은 110명으로 전체 의원의 65.9%를 차지했다.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34.1%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총 146명 중 남성 의원이 101명(69.2%), 여성 의원이 30.8%(45명)를 기록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총 21명 중 남성 의원은 9명(42.8%), 여성 의원은 12명(57.2%)으로 분석됐다.



연령 현황

최연장자 만 71세,
최연소자 만 25세,
평균연령 만 54세

제12대 경기도의원 중 최연장자는 올해 만 71세(1955년생)인 김동희 의원(더민주, 부천6)이며, 최연소자는 올해 만 25세(2001년생)인 서인하 의원(더민주, 비례)이다. 전체 의원의 평균연령은 만 54세로 산출됐다.(2026. 7. 6. 기준)



챗GPT

Chapter 2



삶의 길



힘겨운 하루일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곁에서 건네는 작은 변화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회복의 온기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길

의왕역에서 왕송호수까지

시원한 물길 따라 걷는 하루

멀리 떠나지 않고도 시원한 물가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의왕으로 향해 보자. 1호선 의왕역에서 출발해 왕송호수를 한 바퀴 둘러보는 이번 코스는 호수 바람 맞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름철 힐링 여정이다.

글 유현경 **사진** 의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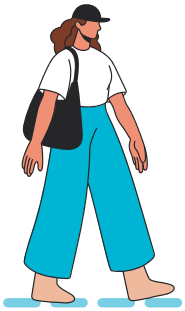


▲ 왕송호수



여행 코스

- 호수, 생태, 문화, 체험을 함께 즐기는 여름 힐링 코스
- **이동 난이도**
  평지 위주, 걷기 부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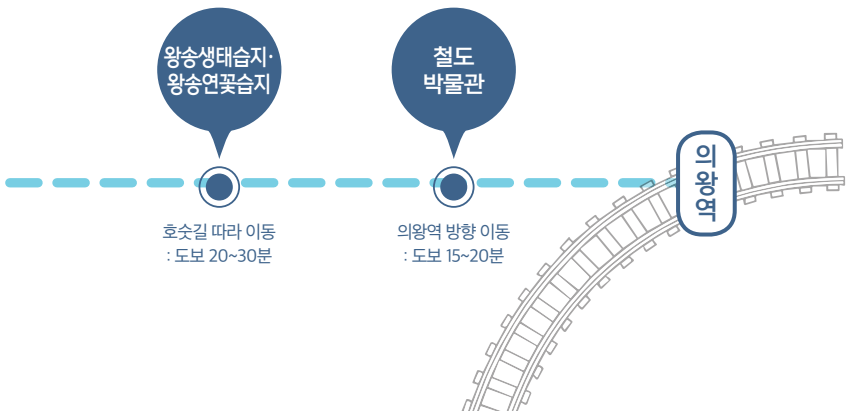
의왕역

왕송호수
의왕역 1번 출구→왕송호수 방향 이동
: 도보 15~20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방향 이동
: 도보 5분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생태습지 방향 이동
: 도보 10분





❶ __ 여름 나들이의 시작, 의왕역

여름날 의왕은 초록이 무르익고 햇살이 반짝인다. 의왕역은 왕송호수 여행의 출발점이다. 역을 나서면 도심의 분주함은 서서히 멀어지고, 넓은 하늘과 호수 풍경이 기다린다. 수도권 어디서나 접근하기 쉬워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자연 속 여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tip 1번 출구 이용 시 동선 편리, 2번 출구 이용 시 버스+도보로 이동 가능, 주말 오전 방문 추천





▲ 왕송생태습지·왕송연꽃습지

❷ 호수를 달리는 특별한 경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수도권 최대의 인공 생태습지 왕송호수는 제방 길이 640m, 총저수량 207만 톤의 저수지로, 사계절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어종과 습지식물, 수중식물이 분포된 곳이다.

왕송호수 풍경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으로는 레일바이크를 추천한다. 호수를 따라 이어진 선로를 천천히 달리며 수면 위로 반짝이는 햇살과 짙어진 녹음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부담 없이 즐기기 좋으며, 시원한 호수 바람이 더위를 식혀 준다.

tip 탑승 시간 약 50분,
모자·선크림 준비 추천,
이용 요금은 2인 및 4인 기준,
할인 정보 및 예약 홈페이지 참고
(uwrailpark.com)



▼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 철도박물관

❸ ___ 새들의 세상을 만나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레일바이크 탑승장 인근에 자리한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왕송호수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좋은 공간이다. 다양한 조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왕송호수에 서식하는 새들의 특징과 생태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 학습의 기회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다.

tip 유료 이용, 월요일 휴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및 휴게 공간 이용 가능

❹ ___ 생명이 피어나는 왕송생태습지·왕송연꽃습지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을 지나면 왕송생태습지와 왕송연꽃습지가 이어진다. 여름철 이곳의 주인공은 단연 연꽃이다. 연못 위로 피어난 연꽃과 싱그러운 초록빛 잎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습지 곳곳에서는 다양한 곤충과 새들을 관찰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걷기 편한 덱 길을 따라 천천히 둘러보기 좋고,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tip 7월 중순~8월 초 연꽃 절정, 덱 길 위주로 이동 가능, 유모차·휠체어 이동은 다소 불편, 사진 촬영 명소 다수

❺ ___ 철길 위에 쌓인 시간, 철도박물관

왕송생태습지를 지나면 국내 대표 철도 전문 박물관인 철도박물관이 나온다. 철도박물관은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 전시관에서는 철도 관련 자료와 모형, 각종 역사 기록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야외에는 실제 기관차와 객차가 전시돼 있어 가까이에서 둘러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체험 공간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다.

여름철에는 실내 전시 공간을 활용해 잠시 더위를 피하며 관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연과 생태를 둘러본 뒤 철도 문화를 접하는 경험은 이번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tip 유료 이용, 월요일 휴무, 실내·야외 전시 모두 관람 가능, 실제 기관차 관람 인기

❻ ___ 다시 일상으로, 여름날의 여유를 품고

철도박물관을 뒤로하고 의왕역으로 돌아오는 길. 출발할 때와 같은 길이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여름철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수도권 대표 힐링 여행지인 왕송호수에서 즐긴 레일바이크, 생태습지의 싱그러움, 연꽃이 피어난 호수 풍경, 그리고 철도박물관의 특별한 볼거리가 어우러져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준다.

tip 총 4~5시간 소요, 유아·어르신 동반 가능, 편한 운동화 착용 추천

초원을 지나, 시간 속으로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다며 설렘을 감추지 않은 임동은 씨는 일평생 살아온 안성의 다양한 면모를 탐방하기로 결심했다. 안성의 수려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안성팜랜드와 함께 안성 특산품인 유기와 향토 문화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안성맞춤박물관을 여행지로 정한 그는 초원과 시간을 자유분방하게 관통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글 강진우 **사진** 고평주









QR코드를 검색하면 임동은 도민님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성팜랜드 |

친근한 동물과 여름 코스모스가 선사한 힐링

파란 하늘과 적당한 구름, 기분 좋은 햇살과 상쾌한 바람. 마치 임동은 씨가 안성팜랜드를 찾을 줄 알았다는 듯 이날 날씨는 100점이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날씨만큼이나 밝은 얼굴로 차에서 내린 그가 소풍 나온 어린아이처럼 안성팜랜드 입구로 걸음을 재촉했다. "평생을 안성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탁 트인 초원이 펼쳐진 체험형 목장이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하지만 그 덕분에 안성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나들이 온 기분을 느끼고 있으니, 오히려 잘됐습니다."(웃음)

입구에 들어서자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이 임동은 씨를 반겼다. 마치 살아 있는 동물을 대하듯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넨 그가 느긋한 속도로 사방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사를 터트렸다. 그 와중에도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체험 목장으로 향하는 길만큼은 잃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릴 적부터 소를 먹이고 강아지를 키우는 등 동물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자, 동물과의 조우를 향한 그의 기대감이 충분히 이해됐다.

체험 목장 간판을 지나치자 가축들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그중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로 다가서던 임동은 씨가 한 옥타브 높아진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 염소와 양이 있네요." 흐뭇한 표정으로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가 먹이 주기 체험에 나섰다. 건초 바구니를 들고는 염소와 양을 부르자, 사육사가 준 건초를 먹는 데 여념이 없던 동물들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둘씩 그의 앞에 모이더니 건초를 맛나게 먹었다. 뒤이어 만난 돼지도, 말과 당나귀도 그가 주는 먹이를 기꺼이 물고는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냈다.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이 통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매점에서 잠시 숨을 고른 임동은 씨가 지친 기색 없이 초여름 초록빛이 완연한 초원으로 나섰다. 황소와 젖소가 여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과 목장 길을 따라 양옆으로 늘어선 매실나무를 감상하며 옛 기억을 떠올리던 그가 저 멀리 형형색색의 꽃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이곳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코스모스 초원이 저기 있네요!" 평소 코스모스를 좋아해 사는 곳 인근 저수지로 자주 산책을 다니는데, 어느 순간 군락이 사라져 무척 속상했다는 이야기가 뒤따랐다. 일행과 함께 부지런히 초원을 달린 그가 마침내 만발한 여름 코스모스 무리와 마주했다. 은은한 꽃향기와 그의 은은한 미소가 제법 잘 어울렸다.

| 안 성 맞 춤 박 물 관 |
안성 유기와 함께 전시된 아련한 추억들

안성맞춤.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일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맞을 때, 우리는 이 네 글자를 입에 올린다. 이 말의 유래는 안성 유기다. 조선시대 양반가는 가문에 따라 맞춤 제작한 유기를 사용했는데, 유기 장인들이 많이 살던 안성에서 맞춤 제작을 의뢰하면 주문자의 마음에 쏙 드는 유기가 완성됐다고 한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여행지 Information

⊙ 안성팜랜드

128만 7,000㎡(약 39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초원 위에 들어선 체험형 목장이다. 다양한 가축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갖췄다. 초원마다 호밀밭, 여름 코스모스 등을 가꿔놓은 덕분에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며 산책하기에도 그만이다.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031-8053-7979

⊙ 안성맞춤박물관

조선시대부터 이름난 안성 유기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유기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안성의 농업과 향토 문화를 다룬 전시실도 마련돼 있어 본격적으로 안성을 여행하기에 앞서 들르기 좋은 관광지로 안성맞춤이다.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031-676-4352







전국에 입소문이 나며 안성맞춤이라는 말까지 탄생했으니, 안성과 유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장에서 나고 자랐기에, 임동은 씨 기억 속에 안성 유기가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효자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부상으로 받으신 유기 한 세트도 가지고 오셨어요. 덕분에 그 귀한 유기를 사용하며 자랐고, 지금도 집에 그 유기가 5개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십 년 전에는 유기 공방 구경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렇듯 안성맞춤박물관은 임동은 씨 인생 곳곳에 자리한 안성 유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이날의 두 번째 여행지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자, 고즈넉한 분위기의 안성맞춤박물관이 금세 모습을 드러냈다. 방문 목적이 명확했던 만큼, 임동은 씨는 가장 먼저 갖가지 안성 유기를 전시한 1층의 안성맞춤유기전시실로 향했다. 유기의 정의와 유래, 안성 유기의 역사와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난 경위 등을 훑으며 안쪽으로 들어가자, 황금 빛깔 유기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릇은 물론 향로, 자물통, 다리미, 안경 등 다양한 형태의 유기 유물을 관람하는 임동은 씨의 눈빛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안성 출신 이종득 화백이 서울의 시전보다 규모가 컸다고 전해지는 안성장을 그린 수묵화 앞에서는 그 섬세함에 혀를 내둘렀다.



안성의 농업과 향토 문화를 다룬 농업역사실도 임동은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게, 호미, 삼태기, 쟁기 등 갖가지 농기구를 구경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꼬마 때 본 농사짓는 풍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이런 쟁기를 안성팜랜드에서 본 커다란 소에 걸어 논밭을 갈았죠." 안성 유기를 살펴보려고 왔는데 고향의 역사와 문화까지 두루 알게 되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한 임동은 씨가 오늘 밤에는 어린 시절 꿈을 많이 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너털웃음을 지었다. 초원과 시간을 가로지른 그의 '안성맞춤 나들이'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허 준

따뜻한 처방을 만나다

龜(구) 巖(암)

조선의 명의 구암 허준이 시간의 물결을 건너 경기도의 한 복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의보감>을 집필하며 백성의 삶에 약재를 처방했던 허준이 이번에는 조례가 빚어낸 생활의 변화를 살펴본다. 두 가지 조례가 청년군인과 제대군인, 또 장애 아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옛사람의 눈으로 그윽이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챗GPT

부상 군인,
사회복귀의 길을 찾다

재활 훈련 장비와 전동 휠체어가 줄지어 놓인 한 센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부상을 입은 전역 군인들이 취업을 위해 새로 배운 기술을 실습하고 있었다. 도포를 두른 허준이 낯선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재활센터 안내인 ___ 여기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입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분들이 취업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는 곳이에요.

제대군인 ___ 과거에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취업과 창업까지 도와준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허준 ___ 전란 후 부상당한 병사를 돌보던 시절, 상처를 치료한 뒤 삶을 이어가는 것은 오롯이 각자의 몫이었소. 이제는 길을 닦아주는 손길이 있구려.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 ___ 올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전환해 취업·창업·직업훈련·정착 지원을 통합했습니다.

재활센터 안내인 ___ 일자리 상담사와 심리 상담사가 함께 군 경력 단절이나 직무 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창구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죠.

허준 ___ 예전에는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 여겼소. 이제는 부상을 딛고 사회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니 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오.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 ___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했지요.

허준은 현대의 제대군인이 재활훈련 받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치유'는 더 이상 약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리 잡았다.

어린 숨결을 보듬다

색색의 공과 균형대, 발달 재활 치료 도구가 놓여 있고, 한 어린이가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옆에서 조심스레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이 보였다.

재활치료사 ___ 이 아이는 발달 지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에요. 예전에는 영유아 단계에서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부모 ___ 의료비와 보조기구, 발달 재활 서비스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관이 연결돼 상담과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해요.

허준 ___ 우리 때는 가족이 알아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소. 작은 증상이라도 빨리 발견해 치료해야 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오.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 ___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뿐 아니라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 재활 서비스, 가족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센터는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과 개입, 장애 아동 사례 관리, 연구 자료 개발, 가족 상담·교육 등을 맡고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거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를 거점 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재활치료사 ___ 센터를 통해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지역별로 거점이 마련되어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졌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허준 ___ 아이의 숨결을 살피는 일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큰 의무라 했소. 시대가 바뀌어 복지 형태는 달라졌으나 어린 생명을 보듬으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구려.

※ 알림

본 코너는 경기도의회 조례가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한 창작 논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상황, 대화는 일부 재구성했으며, 조례의 제정 내용과 취지는 실제 사실에 근거합니다.



마음을 잇는 제도, 삶을 바꾸는 하루

허준은 하루 동안 두 곳을 둘러보고 난 뒤 무심결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전쟁에서 돌아온 이들의 생활을 돕고, 발달의 불꽃을 간직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주는 두 조례는 제도의 언어로 쓰인 처방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약재와 정성이 치료의 전부였다면, 오늘날 경기도의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치유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허준 ___ 전란에 쓰러진 병사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 모두가 나라의 백성이라 했소. 이제는 조례라는 이름으로 치유의 손길을 건네니, 이것이야말로 백성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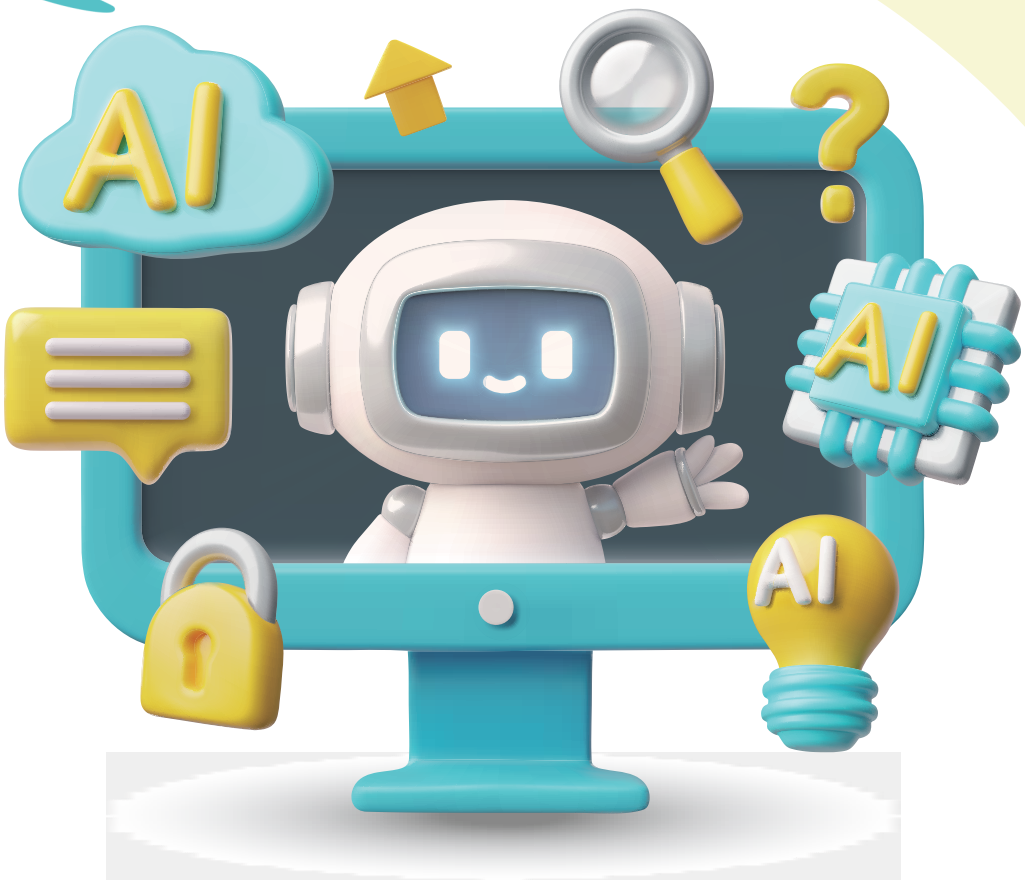
***

조용히 제도가 변할 때,
도민의 하루가 바뀐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옛 명의의 눈에도
경기도의회 조례는
가장 따뜻한 처방으로
보였다.

교실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학교 운영도 이제 디지털 시스템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동시에 학교가 사용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지역 경제와도 연결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의 구매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글 유현경



디지털재난에도 멈추지 않는 학교 만들기

학교의 학사 행정과 교육 활동은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육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정보 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대응 과정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안 역량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킹과 시스템 장애 등 예상치 못한 디지털재난이 발생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교육기관 전체가 더욱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한데, 조례를 통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감한 교육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 구매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모여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중심 지역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광민 의원(더민주,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사립학교에도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매계획 수립과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우수기관 표창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담아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공공조달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사립학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도록 한 의미 있는 입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구매력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챗GPT

경기도의회는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김광민 의원(더민주,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지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은 이유

평범한 일상 속 불편과 위험을 마주한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글 강나은 **일러스트** 챗GPT



※ 알림

이 소설은 작가의 창작 논픽션으로, 상황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의 실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화 비 오는 날, 잠기지 않은 길

저녁 여덟 시, 골목 카페에 천둥소리가 들이쳤다.

민정은 마지막 손님이 두고 간 컵을 정리하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에 부딪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일 년 전이라면 벌써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었을 것이다. 카페 앞 도로가 강처럼 변하기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발밑으로 벌써 물이 차오르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비는 거세게 쏟아지는데 도로는 잠기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에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고, 빗물받이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엄마, 왜 올해는 물이 안 넘쳐요?"

지후가 창문에 코를 대고 물었다. 열 살이 된 아들은 작년 여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나르던 어른들, 카페 안에서 발이 물에 잠겼던 일, 이모네 가서 며칠간 함께 장마철을 보냈던 일까지.

민정은 대답 대신 창문 너머를 가리켰다. 카페 맞은편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비를 맞으며 허리를 굽힌 채 움직이고 있었다. 빗물받이 격자 위에 쌓인 낙엽과 비닐을 한 줌씩 걷어내는 중이었다. 조끼 등판에는 '재난안전지킴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저 아저씨가 계속 봐주고 계셔서 그런가."

"여러분의 질문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후가 고개를 갸웃했다.

민정은 잠시 답을 찾지 못했다. 같은 비, 같은 거리. 그런데 올해는 물이 넘치지 않았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었다. 뉴스에서는 이번 여름 경기도 내 재난안전지킴이 900여 명을 투입해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빗물받이 등 9개 분야 약 5만 곳을 사전점검 중이라고 했다. 5만 곳, 900명.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저 숫자일 뿐이던 뉴스가 장마철이 되자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2화 __ 질문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여름, 같은 골목.

비는 새벽부터 쏟아졌다. 점심때쯤 도로가 종아리 높이까지 물에 잠겼다. 민정은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모래주머니를 끌고 와 입구를 막아주었다. 그래도 문틈으로 물이 스몄다. 지후는 카페 안쪽 책상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다음 날 아침,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자영업자들이 모였고, 어르신 몇 분도 자리를 채웠다. 누군가는 매년 똑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정부만 탓했다. 그 와중에 민정이 손을 들었다.

"빗물받이는 누가 관리하나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배수펌프장은 제때 가동되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 동네는 비만 오면 왜 매번 잠기는 거죠?"

질문은 짧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었다. 늘 그러려니 하고 넘기던 일을 처음으로 짚고 넘어가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지역구 서정우 도의원도 참석해 있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민정의 말을 받아 적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주 뒤, 서정우 의원은 주민, 재난안전지킴이와 함께 동네 빗물펌프장을 둘러보았다. 펌프 두 대 중 한 대는 노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일부 우수관로에는 토사가 절반 가까이 차 있었다. 하수 맨홀의 역류 방지

설비는 빠져 있었다. 사진과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건 비 때문이 아니었네요."
민정이 펌프장 앞에서 말했다. 서정우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매년 옵니다. 잠기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3화 ___ 의회, 물의 길을 묻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서정우 의원이 마이크를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작년 OO동 침수 피해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노후한 빗물 펌프, 막힌 우수관로, 부재한 역류 방지 설비. 비 때문이 아니라 점검이 미뤄진 결과였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행정 실무자가 자료를 펼쳤다.
"경기도는 현재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차도, 하천 변 보행 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등 9개 분야에 걸쳐 사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약 96만 개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5만여 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고, 재난안전지킴이 9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의원이 자료에서 시선을 거두며 말을 이었다.
"자료로 나타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현장 한 곳 한 곳에서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동네 빗물받이가 막히면 그 동네의 여러 상점이 물에 잠깁니다. 펌프 한 대가 멈추면 그 골목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서정우 의원은 빗물 펌프 교체와 우수관로 청소를 위한 특별 지원 사업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유지·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였다. 두 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예산안은 가결되었다.
같은 시간, 동네에서는 재난안전지킴이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빗물받이 격자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다. 같은 주, 지후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도의원실 문을 두드렸다.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가요?"
서정우 의원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그림을 그려주었다. 빗물받이에서 시작해 우수관로로, 펌프장으로, 그리고 하천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중간중간 점검하는

"비가 오면 빗물은 어디로 가요?"





사람의 모습도 그려 넣었다. 서정우 의원이 설명을 곁들였다.

"물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누군가 봐주고 있어야 막히지 않는 거예요."

지후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4화 다시 내리는 비

민정과 지후는 창문 앞에 나란히 섰다. 도로에는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카페 앞 빗물받이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물을 받아내고 있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잠시 처마 아래로 들어와 비를 피했다.

"엄마, 작년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응, 맞아."

"그래서 올해는 물이 안 넘치는 거예요?"

민정이 웃었다.

"질문만으로 안 넘치지는 않지. 누가 듣고, 누가 확인하고, 누가 와서 치워주고.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는 거야."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서정우 의원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셔츠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다.

"근처 펌프장 둘러보고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올해는 별일 없어 보여 다행이에요."

"의원님, 따뜻한 차 한잔 드릴게요."

서 의원이 컵을 받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올해 비가 무사히 지나가면, 내년에는 또 다른 위험을 미리 찾아봐야죠. 늘 새로 막히는 데가 생기니까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골목은 평소처럼 말라 있었다. 아이들이 종이배를 만들어 들고 나와 인도 가장자리에 고인 빗물 위에 띄우며 깔깔거렸다.

"물이 안 넘쳤다!"

카페 벽 한쪽에는 지후가 학교 과제로 그린 그림이 새로 붙어 있었다. 빗물받이를 들여다보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 회의실에 앉은 의원들, 그리고 손을 든 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물이 넘치지 않은 이유.'

민정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질문과 점검이 만든 길 위에서 비는 더 이상 재난이 아니었다.

말하지 않고 삼킨 세월을 지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훨훨 오르시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최선순** 할머니

최선순 할머니는 마음에 담아두는 법 없이 할 말은 바로 하시곤 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성품인데도 끝내 하나의 기억은 임종 전까지 가슴에 꼭꼭 숨겼다. 바로 일본군에게 짓밟혔던 기억이었다. 눈을 감을 때까지도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꿈에 시달리고 일본어로 잠꼬대를 하시던 최선순 할머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 모진 세월 없이 더 자유롭게, 이번에는 온전한 당신으로 훨훨 날아오르시길 기도해 본다.

글 강나은 **사진** 고평주

돌아가시기 전날에야 꺼낸 한마디

최선순 할머니가 평생 감춰온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내가 죽으면 장례비가 군에서, 읍사무소에서 나올 것이다."

느닷없는 말씀에 아들 왕상문 씨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있었다. 이어 할머니는 자신이 오래전 일본에 다녀왔노라 말씀하셨다. "일본에 왜 다녀왔냐고 여쭤보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위안부'가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긴 할머니는 몇 시간 만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은 마지막 순간에야 가족에게 건넨 고백이자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었다.

최선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끝내 속내를 내비치지 않으셨다. 장가가는 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자식에게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한 어머니였다. 그런 할머니가 '위안부' 고백을 한 이유 역시 자식에게 장례 비용을 짐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끊임없던 악몽과 복통의 이유

최선순 할머니가 떠나신 뒤에야 왕상문 씨는 어머니의 오랜 통증의 원인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최선순 할머니는





어머니는 눈을 감기 몇 시간 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기억을 처음 들려주셨습니다.



생전에 주무실 때면 악몽을 꾸는지 잠꼬대로 일본말을 하곤 했다. 그뿐 아니었다. 최선순 할머니는 평생 이유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 가족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온갖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늘 배가 아프다고만 하셨어요. 작은 병원부터 멀리 있는 정읍아산병원까지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면 병원을 찾아갈 정도였으니까요."

이런저런 검사로도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한 통증이, 실은 수십 년 가슴에 맺힌 상처 때문이었음을 가족은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그러셨을까, 뒤늦게 알고는 많이 후회했죠."

최선순 할머니는 오랜 세월 홀로 자식들을 지켰다. 왕상문 씨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장을 받아 들던 무렵 남편을 여읜 것. 왕상문 씨는 중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화물차 조수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렇게 한참 외지 생활을 하다 외로워하는 어머니가 계신 고창으로 내려왔다. 그럼에도 그간 말 한마디 살갑게 건네지 못한 것이 자꾸만 생각난다.

"자식들 키우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고, 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내드린 게…."

왕상문 씨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이 함께하는 집

최선순 할머니가 떠나고 사흘 만에 나눔의집에서 추모제가 열렸고, 그 인연으로 왕상문 씨와 가족은 지금까지 나눔의집을 찾고 있다. 자녀들도 함께 와 '우리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되새기며 돌아가곤 한다.

한편 고향에서는 청년회가 뜻을 모았다. 청년회에서 모금을 통해 마을에 소녀상을 세운 것이다. 이후에는 행사 때마다 동상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있다. 평생 숨겨 온 할머니의 아픔이 이제 마을의 기억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위안부' 문제는 머나먼 과거에, 모르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은 상처이자 가까운 이웃이 겪은 아픔이다.

최선순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왕상문 씨는 일본으로부터 끝내 받지 못한 사죄를 받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가 사죄 한 번 못 받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돌아가셨으니까요. 일본도 빨리 사죄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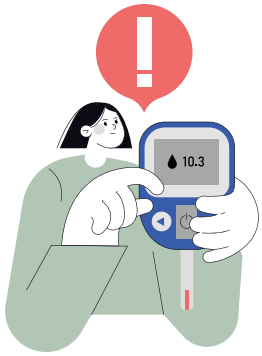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 원망스럽다는 왕상문 씨는 지금같이 좋은 시대에 어머니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최선순 할머니 역시 하늘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혈당 관리, 달콤한 습관을 경계하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몸이 지치면 시원하고 단 음료나 간식이 떠오른다. 반대로 단맛이 예전처럼 당기지 않거나, 담백한 음식을 찾게 되는 변화가 느껴질 때도 있다. 이는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글 유현경



혈당은 왜 중요할까?

혈당 조절 하면 많은 이가 당뇨병 환자만의 이야기로 여긴다. 하지만 혈당 관리는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관리의 일부다. 혈당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의미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일반적으로 혈당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 곳곳의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정상 공복혈당은 보통 100mg/dL 미만이며, 100~125mg/dL은 당뇨 전 단계, 126mg/dL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문제는 혈당 이상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쉽게 피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정도로 지나치는 경우도 많아 간과하기 쉽다.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 효과가 크지만,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식후 혈당 급상승, 왜 위험할까

혈당 관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혈당이 단순히 당뇨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뇌 혈류 감소와 인지 기능 저하, 비만과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도 중요한 건강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혈당 스파이크는 평소 공복혈당은 정상이어도 식후 짧은 시간 동안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혈당 급상승은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자가혈당측정기를 통해 식후 혈당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무엇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생활 습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식탁에서 시작되는 혈당 관리

현명한 혈당 관리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 리듬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 이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쉽고, 단 음식 위주의 식사는 혈당 변동 폭을 크게 만든다. 흰 빵이나 달콤한 음료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채소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은 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식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도 좋다. 몸을 움직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 역시 중요하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혈당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 속에서 서서히 변한다. 아침 식탁에서 단맛을 조금 덜어내는 선택, 식후 잠깐 걷는 습관 같은 작은 변화가 결국 건강한 혈당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문자 속 링크,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택배 안내, 청첩장, 정부지원금 안내처럼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안의 링크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기 수법인 스미싱에 대처하자.

글 유현경



문자로 온 링크는 일단 의심하자

최근 실제 택배회사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문자 속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범죄를 '스미싱(Smishing)'이라고 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낚시)의 합성어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한 뒤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장도 자연스럽고 실제 기관 이름을 사용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스미싱 문자의 특징은 “계좌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 마감이 임박했습니다”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긴급성을 강조해 서둘러 확인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확인하세요”, “택배 주소를 다시 입력하세요”와 같이 일상에 밀접한 내용으로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또 인터넷 주소(URL)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소가 길거나 낯선 영문과 숫자가 섞여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문자만으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선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택배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기보다 직접 택배 회사 앱을 열어 배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도 마찬가지다. 문자에 있는 주소를 누르지 말고 평소 사용하던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질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확인하는 습관이다. 문자 속 링크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미심쩍으면 누르지 않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눌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고 모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면 금융기관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는 앱이 설치됐다면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악성 앱에 감염됐던 휴대폰으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 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가 크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rrncc.go.kr)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다.



초가집에서 아파트까지

하루를 품는 공간의 변화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만이 아니다.
밥을 짓고, 몸을 씻고, 가족이 모이고,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삶의 공간이다.
초가집과 기와집, 슬레이트집을 지나 오늘날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집 모양은 크게 달라졌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는 의외로 비슷하다.

글 유현경 일러스트 챗GPT

마당에서 시작되던 하루

퇴근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익숙한 복도가 이어지고, 집 안에서는 전기밥솥의 취사 완료 음이 들린다. 현대의 집은 살기 편하고 따뜻하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집 외관은 크게 달라졌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가족을 품는 공간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의 집은 대부분 초가였다.

초가집의 구조를 떠올리면 오늘날 아파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보인다. 방과 부엌, 마당, 장독대, 외양간이나 헛간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생활은 방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당과 부엌, 뒤뜰까지 모두 살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마당은 빨래를 널고, 곡식을 말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웃이 오가던 공간이었다.

옛 풍속화 속 집 주변 풍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에는 집 안팎에서 일하고 쉬고 오가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은 방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골목과 문간에서 이웃을 만나고, 집 밖 풍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살았다.

현대의 아파트에는 마당이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모일까? 마당 대신 거실이다.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고, 아이가 장난감을 펼치는 공간이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놓이고, 작은 빨래 건조대가 있다. 마당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흙바닥 마당이 하던 역할은 거실과 베란다, 단지 내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분산되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기다리다

더운 계절이 오면 사람들은 집 구조를 이용해 더위를 이겨냈다. 조선시대 양반가 한옥에는 대청마루가 있었다.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골목과 문간에서 이웃을 만나고, 집 밖 풍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살았다."



사방으로 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집 안을 통과했다. <동국세시기>에는 여름철 사람들이 마루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 초가집의 마당에도 여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처마 밑 그늘에 자리한 평상에서 수박을 먹거나 참외를 깎아 먹었다. 저녁이면 집 앞에 멍석을 펴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마당에 누워 별을 세고, 어른들은 부채를 부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더위를 피하는 일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의 일부였다.

오늘날 아파트는 한여름에도 비교적 쾌적하다. 에어컨 버튼 하나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냉장고에는 얼음과 시원한 음료가 늘 준비돼 있다.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보인다.

예전처럼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는 풍경은 보기 힘들지만, 저녁이면 거실에 가족이 모여 과일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위를 견디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가족이 집 안에서 여름을 보내는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집이 근대화의 얼굴이 되다

1960~1970년대에 이르면 농촌의 집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는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붕 개량이었다. 해마다 새로 이어야 하는 초가지붕이 슬레이트나 개량 기와지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근대화의 얼굴이었다. 마을의 지붕색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비가 새는 걱정이 줄고, 해마다 지붕을 이는 수고도 덜 수 있었다. 초가집에서 슬레이트집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지붕 재료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시대의 의지였다.

그 변화는 마을 풍경도 함께 바꾸었다. 둥글고 낮은 초가지붕이 이어지던 마을에 직선의 회색 지붕이 들어섰다. 흙담과 초가가 만들던 부드러운 풍경은 블록담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차츰 바뀌었다. 편리함과 위생, 근대화의 물결이 스며들면서 오래된 풍경은 서서히 뒤안길로 물러났다. 각 집에는 전기가 보급되고, 라디오와 흑백텔레비전이 놓이고, 부엌에는 석유풍로나 전기밥솥 같은 물건이 들어왔다.



방의 의미가 달라지다

옛집에서 방은 여러 기능을 품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손님을 맞고 바느질을 하고 아이가 공부를 했다. 방 하나가 침실이자 거실이고 식당이자 작업실이었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활은 자연스럽게 겹쳤다.
지금 아파트는 공간마다 기능이 나뉜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곳, 주방은 음식 만드는 곳, 침실은 쉬는 곳, 작은방은 공부하거나 일하는 공간이다. 방마다 이름이 있고 쓰임이 정해져 있다. 가족 구성원마다 하나씩 방을 갖는 일도 흔해졌다.
이 변화는 개인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혼자 쉬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러나 가족 모두 모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방 하나에 다 모일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기 좋은 구조다.
거실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기만의 공간에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보든 과일을 먹든 잠깐 대화를 나누든 거실은 현대의 마당이자 대청으로 기능한다.

집 안으로 들어온 기술, 밖으로 열린 생활

아파트는 밖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집이다. 스마트폰으로 현관문을 열고, 택배 도착 알림을 받고, 음식도 주문한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로봇청소기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감지한다. 집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똑똑해졌다.
과거의 집도 밖과 단절된 공간은 아니었다. 이웃이 드나들고, 마당에서 소식이 오갔다. 다만 사람의 발걸음과 목소리로 연결이 이루어졌다. 오늘의 집은 사람 대신 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택배 상자는 현대 아파트의 새로운 살림 풍경이다. 예전에는 장에 가거나 이웃에게 빌려야 했던 물건이 이제는 현관 앞에 놓인다. 장독대와 곳간이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보관하던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냉장고와 팬트리, 택배함이 그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다.
마당은 사라지고 거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예전에는 집 밖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활동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골목 대신 놀이터와 학원으로 향하고, 가족들은 소파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면 비슷한 구조의 공간이 펼쳐진다. 생활은 한층 편리해졌고, 집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품게 되었다.
온수와 난방, 단열과 방음, 보안 시설까지 과거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활환경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의 집은 사람 대신
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그 시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일상이 익숙하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간식 하나를 사 먹기 위해 골목길을 누비고, 어머니의 수고로 차려진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시대에 따라 먹는 모습은 달라졌지만 사람을 이어주는 음식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글 유현경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학교 앞, 가장 달콤했던 시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학교 앞 가게로 향했다.

"아이스케키 하나 주세요!"

"난 뽑기 해볼래!"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지만 마음은 늘 넉넉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스케키 통을 든 아저씨가 아이들을 기다렸고, 가게 앞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둘 아이스케키를 손에 쥔 채 웃음꽃을 피웠다. 친구와 나란히 앉아 먹는 아이스케키 한 개에도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시절이었다.

또 다른 즐거움은 뽑기였다. 국자에 설탕을 녹여 만든 달콤한 뽑기를 들고 찍어준 모양을 조심스레 떼어내던 순간의 긴장감은 작은 놀이이자 도전이었다. 별 모양, 우산 모양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던 모습은 당시 아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시절의 간식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 스며든 작은 행복이었다.



지금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수많은 간식과 디저트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맛도 풍성해졌지만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뽑기 하나에 마음 졸이던 그 따뜻한 풍경만큼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독자 이벤트



추억의 간식 베스트 10을 뽑아라

학교 앞 떡볶이, 쫀드기,
아이스케키, 달고나, 뽑기, 라면까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간식은 무엇인가요?
독자들의 응답을 모아 다음 호
'독자 솜씨 마당'에 소개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보리밥 도시락과 새마을운동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밥상에도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쌀이 부족해 혼분식 장려정책이 시행됐다. 보리와 밀가루 소비를 늘리고 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섭취를 권장하고, 학교에서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잡곡밥 검사도 했다. 흰쌀밥만 가득 담긴 도시락은 눈총을 받았다. 잡곡밥은 절약과 근면을 나타내는 시대의 상징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먹던 보리밥과 잡곡밥이 오늘날 건강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는 어려운 시대상이 배어 있던 음식이 이제는 건강한 식생활의 대표 메뉴가 된 셈이다.











밥상, 가족이 모이는 시간

그 시절 집집마다 비슷한 풍경이 있었다. 가족은 삼시 세끼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어른들은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어땠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는 더 많은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건넸다. 밥상은 단순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과 추억을 쌓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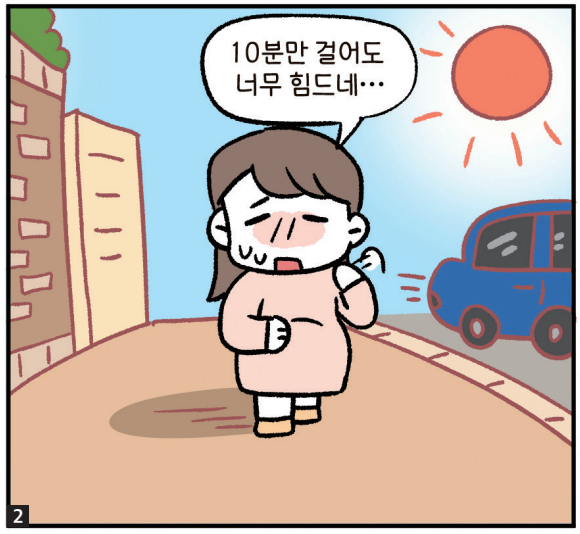
오늘날에는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학교와 학원 일정도 제각각이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든 가정도 많다. 하지만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과 한자리에 모인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식은 먹고 나면 사라지지만 그 음식과 함께했던 시간은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는다. 가족과 둘러앉아 나눈 대화, 어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재잘거림은 음식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옛 음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과 그 시절의 따뜻한 시간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바카


쨍—
그늘이 필요해.
후—
너무 덥다…
쉴 곳이 있었으면…
작은 목소리가 그늘을 만들다


잠깐 앉을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35도
1


10분만 걸어도 너무 힘드네…
2


덥다…
3


그늘이 필요해요.
쉼터가 필요해요.
쉬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4

'의회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쉽게 풀어낸 웹툰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의회의 역할을 전합니다.



한여름, 예술을 거닐다

경기도 축제와 전시



양평 축제

연꽃의 계절, 아름다운 여름 산책

2026 세미원 연꽃문화제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여름, 연꽃박물관 기획전 <연꽃, 삶의 염원을 수놓다>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 전시와 연꽃 사진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주말에는 장구와 통기타 공연이 이어지며, 연꽃문화체험교실에선 손수건 염색 체험과 하바리움 무드 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간 2026. 6. 26.~8. 17.
장소 양평 세미원
요금 일반 7,000원(양평사랑상품권 2,000원 지급), 우대 4,000원
문의 031-775-1835
홈페이지 semiwon.or.kr

파주 공연

공연예술의 매력을 쏙쏙 담은

쏙쏙들이 페스티벌



매월 브라스밴드·탭댄스·아카펠라·클래식·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며, 야외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공연장을 찾기 어렵게 느꼈던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헤이리예술마을과 함께 둘러보면 더욱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기간 2026. 3. 14.~12. 26.(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장소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요금 무료
문의 031-870-9110
홈페이지 ntok.go.kr/sasc

남양주 전시

절기 속에 담긴 선조의 지혜

이십사二十四: 하늘을 읽어 땅을 살리다



<이십사二十四: 하늘을 읽어 땅을 살리다>는 입춘부터 대한까지 이어지는 24절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계절을 이해하고 농경문화를 이어온 과정을 살펴보는 전시다. 절기에 따른 농기구와 생활용품, 세시풍속 자료를 비롯해 농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소개한다.

기간 2026. 5. 12.~10. 18.
장소 실학박물관
요금 무료
문의 031-579-6000
홈페이지 silhak.ggcf.kr

성남 전시

함께 만드는 예술의 정원

조각정원 2



<조각정원 2>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체험형 전시다. 커다란 조형물에 벽지를 붙이고, 점토로 만든 작은 식물을 배치하며 하나의 정원을 함께 만들어간다. 조각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기간 2026. 6. 17.~9. 27.
장소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
요금 무료
문의 031-8078-2900
홈페이지 hmoka.org

용인 전시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

석주선을 잇는 우리에게



한국 복식사 연구의 선구자인 석주선 박사 서거 30주기를 기념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조선 왕실과 사대부가의 복식 문화 유물 70여 점을 통해 약 400년에 걸친 우리 옷의 변천과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다. 고종의 누비저고리, 흥선대원군의 단령, 덕온공주의 날염보 등 귀중한 유물을 전시한다.

기간 2026. 5. 29.~11. 30.
장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요금 무료
문의 031-8005-2389
홈페이지 museum.dankook.ac.kr

수원 전시

손끝으로 피워낸 생활의 美

손끝에서 핀 나날의 꽃



우리 조상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생활 공예품과 자수, 직물 등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전시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자수와 정성스럽게 만든 생활용품에는 가족의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생활에서 꽃처럼 피어난 손작업의 가치를 다양한 소장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기간 2026. 6. 9.~10. 5.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요금 무료
문의 031-324-9114
홈페이지 namuk.or.kr

독자 솜씨 마당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296호를 읽고 보내주신 소감과 독자 참여 코너 '추억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춘의 군번줄

군 생활은 힘들고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웃고 서로를 의지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전우들의 얼굴을 보니 그 시절의 웃음과 열정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지나고 보니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김동석(65)**



꽃처럼 빛나던 날

1989년 4월, 비 오는 봄날 결혼식에 가기 위해 한복을 차려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동네 사람과 저고리와 치마 색이 똑같아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아흔한 살이 된 엄마. 사진 속 눈부시게 젊은 모습을 보니 감사함과 그리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권경옥(22)**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비는 내리고 차는 막혀 짜증이 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무지개가 떠올랐고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일상은 생각보다 많은 행복으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조석현(69)**



퇴근길 무지개



일기장이 건넨 추억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다 딸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딸은 열한 살 아들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났네요. 세월은 흘러도 추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인숙(04)**

독자 이벤트

추억을 보내주세요

추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 한 장면을 들려주세요.
사진 한 장, 짧은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이곳에서 다시 따뜻해집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와 사진 중 일부는 다음 호 '독자 솜씨 마당'에 소개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접수 마감: 8월 21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의정홍보위원회, 2년의 여정을 마치며

소통의 현장에서 함께한 2년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지난 2년은 제게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의 인연과 경험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의정홍보위원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정홍보위원회에서 보낸 지난 2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정홍보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의정활동과 정책 현장을 도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매호 깊이 있는 논의와 세심한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또 바쁜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제언으로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 편집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도민을 향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함께한 그들의 이야기를 도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함께해 주신 외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호흡을 맞춰왔기에 뜻깊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해 나가시길 바라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정홍보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광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가평)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두 외부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유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남습니다.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홍보위원회는 가장 가족적이고 따뜻한 위원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남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이재교 위원(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지난 2년 동안 소식지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등으로 배포 장소를 확대하면서 많은 어르신께서 소식지를 반갑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황광원 위원(케이미디어 대표이사)

평생 디자인 분야에 몸담아 왔지만 의정홍보위원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려니 아쉬움이 크지만 과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yeonggido Job Foundation
경기도일자리재단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2026년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신규인증기업 모집

모집 내용	
신청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신청 기간	2026. 7. 1.~7. 14.
신청 규모	70개사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담당자: 031-280-9925, 9749, 9758)

세부 내용

○ **사 업 명:** 2026년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신규인증기업 모집
○ **인증 분야:** 일자리우수기업 50개사, 청년일하기좋은기업 20개사
○ **인증 혜택:** 인증서 및 현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기업 평가 및 보증요율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구분	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나. 청년일하기좋은기업 인증
대상	고용 실적, 근로 여건 우수기업	청년 고용 실적, 근로 여건 우수기업
선정 규모	50개사 내외	20개사 내외
인증 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3년(1회 연장 가능)
신청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1개 이상 충족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 10명 이상	1개 이상 충족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증가율 5%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 25% 이상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참여 기업 모집

주요 내용 내가 찾던 그 일자리, 우리가 찾던 그 파트너!
경기도가 유연한 일자리 '라이트잡(Light Job)을 제안합니다.

모집 내용	
신청 대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기업,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신청 인원	기업체 채용 근로자 800명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 참여 기업 신청 모아폼(바로가기) moaform.com/q/sFzgMo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 (담당자: 031-270-9722, 9941)

상세 요건

○ **지원 내용**
- 사업자가 경기도 베이비부머 1인 채용 시 최대 12개월(1년)까지 월 40만 원 지급(단, 예산 소진 시까지)
  * 기업당 월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 조건**
- **(참여 기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기업,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 **(채용 근로자)**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1962~1976년 출생자
  2.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 주 15시간~주 36시간 미만 유연한 일자리, 근로계약 기간 만 6개월 이상 체결(필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필수), 4대보험 가입(필수)

○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사업주
- **(신청 기간)**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매월 전월분 신청 必)
- **(신청 방법)**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로그인 → 라이트잡 전용 페이지 접속 → 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근로 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

경기 남부권 지역 새일센터 직업훈련 과정 모집

과정 안내

○ **참여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또는 훈련기관 문의
  * 각 과정별 상세 내용 상이함

센터명	과정명	신청 대상	신청 기간	교육 일정	내용	문의처
경기IT 새일센터	AI 기반 디지털 크리에이터 & 이모티콘	도내 미취업 여성	~7. 20. (월)	7. 30.(목)~ 10. 6.(화)	온라인 (ZOOM) + 대면 교육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031-270-9806
경기도 일자리재단	SW 테스팅 전문가	도내 미취업자	~8. 12. (수)	8. 20.(목)~ 10. 20.(화)	대면 교육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031-270-9939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를 바꾸는 첫걸음

경기도의회의 최신 소식을 담은
의정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물살을 거슬러, 생명을 붙잡다”

거센 급류와 깊은 물속에서도
누군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경기도의 수난 구조 영웅들은
위험을 먼저 마주하며 이웃의 오늘을 지켜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그 숭고한 용기와 헌신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29206
PRINTED WITH SOY INK™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산림보호를 위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듭니다.